

# '미우새' 부터 '골목식당' 까지...SBS 예능 황금기



2018년 한국 예능을 이야기하면서 SBS를 빼놓고 말할 수 있을까. 월요일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부터 일요일 '미운우리새끼'까지 인기 프로그램들이 이끄는 탄탄한 예능 라인업을 자랑했다. SBS에게 올 한 해는 꽃길 가득한 '황금기'였다고 볼 수 있겠다.

2018년 한국 예능을 이야기하면서 SBS를 빼놓고 말할 수 있을까. 월요일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부터 일요일 '미운우리새끼'까지 인기 프로그램들이 이끄는 탄탄한 예능 라인업을 자랑했다. SBS에게 올 한 해는 꽃길 가득한 '황금기'였다고 볼 수 있겠다.

2018년 한국 예능을 이야기하면서 SBS를 빼놓고 말할 수 있을까. 월요일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부터 일요일 '미운우리새끼'까지 인기 프로그램들이 이끄는 탄탄한 예능 라인업을 자랑했다. SBS에게 올 한 해는 꽃길 가득한 '황금기'였다고 볼 수 있겠다.

## 인기 프로그램들이 이끄는 탄탄한 예능 라인업

년층에게는 반갑고 젊은 층에게는 신선한 새 친구의 적절한 투입으로 화제성을 견인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편성 이동이 신의 한 수였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수요일 밤의 터줏대감 라디오스타를 잡는 그림을 상상이나 했을까. 이제는 "백종원에게 2018 SBS 예능대상을 쥐어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슈의 돌풍에 섰다. 금요일 밤을 떠나 8월 29일부터 수요일 밤 방송된 백종원의 골목식당, 꾸준히 4~5%대의 시청률을 유지하다 대망의 '홍은동 포스터 시장' 편에서 제대로 터졌다. 흥타집 아들의 극적인 드라마 덕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자체 최고 시청률을 2주 연속 경신했고 8%대로 치솟았다. 시청자들은 우스갯소리로 백종원과 흥타집 아들이 베스트 커플상 수상을 점치기도 했다.

장수 예능 '정글의 법칙'도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는 프로그램. MBC '진짜사나이 300'과 KBS2 '연애가중계'를 압살하는 수준으로 따돌리고 동시간대 1위를 지켰다. MBC 인기 예능 '나혼자산다'와 전체 금요일 예능 1위 자리를 두고 육신각신할 수 있는 유일한 예능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에는 300회를 기념해 국내 예능 최초로 남극 대륙에 입성해 크게 주목받기도 했다.

일요일 예능 라인업은 더 화려했다. '인기가요' '런닝맨' '집사부일체' '미운우리새끼'로 이어지는 SBS

일요일 예능, '인기가요'는 일요일 정오의 최강자 KBS1 '전국노래자랑'을 피해 오후 3시 이후 시간대로 돌아왔다. 1%의 시청률로 저조한 성적을 보였으나 화제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런닝맨'은 지난해 투입된 전소민과 양세찬이 완벽히 자리잡았고 정철민 PD의 하자로 이환진 PD를 중심으로 체제를 정비했다. 안정세를 보이면서 시청률과 인기도 유지했다. 하지만 이광수의 '꽃뱀' 발연과 김종국 바지 탈의 장면이 방송심의 소위원회와 행정지도와 법정제제를 받기도 했다. 이에 "젠더 논란이 화두인 현 시점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판타스틱 듀오' 후속으로 지난해 12월 첫 방송된 '집사부일체'는 시작은 8%대로 미약하였으나 이제는 참대세였다. 초반에는 사투에 따라 재미가 갈렸지만 멤버들의 케미스트리가 쌓이면서 기록 없는 예능으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1주년 특집으로 사투 대신 배우 손예진과 MT를 마치는 콘셉트를 시도,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는 새로운 포맷의 가능성을 여는 도전이기도 했다.

일요일 예능의 정점이자 SBS 간판 예능은 역시 '미운우리새끼'. 20% 안팎의 시청률 고공행진을 보이며 올해도 큰 사랑을 받았다. 동시간대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는 시청률

의 제물 수준 김건모 김중국 이상민 등 메인 출연진과 게스트 비운 남의세계의 적절한 구성과 더불어 화제성 높은 스페셜 MC 캐스팅으로 이슈의 중심에 섰다. 제작진이 오래 고민 해온 여성 출연자의 출연도 무탈하게 성공했다. 최근 최초 여성 출연자 흥진영은 관심이 힘입어 언니 흥진영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고정으로 합류했다.

탄탄한 예능 지대를 발판 삼아 하반기 색다른 프로그램들이 새롭게 시도됐다. 6부작 '무확행'과 8부작 '폼나게 먹자'와 '빅픽처패밀리' 등이 시청자들을 만났다.

하지만 이미 자리를 잡은 인기 예능 사이에서 신작들이 비집고 들어갈 편성 틈은 좁았다. 예능이 비는 밤은 목요일 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가 떠나 후 '무확행'의 비룡을 이어받은 강호동 메인의 '가로제! 날'은 유튜브와 방송을 접목한 신박한 아이디어에도 시청률 면에서는 아쉬움을 자아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의 수요일 편성 이후 '폼나게 먹자' '미운우리새끼'로 이어진 금요일 밤 11시에도 '나 혼자 산다'에 밀려 맥을 못 추었다.

장수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백년손님'의 토요일 밤은 '빅픽처패밀리'에 이어 '더 팬'이 지난달 말 자리 잡았다. 'K팝스타' 시리즈 PD와 '판타스틱 듀오' 시리즈 PD의 만남으로 주목받았으나 아직은 KBS2 '불후의 명곡'에 밀리는 상황. 아직 초반이기에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프로그램만큼 시청률도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나쁜형사' 3주연속 시청률 1위...빠에로 조커 정체는?



'나쁜형사'가 빠에로 조커 가면을 쓴 살인마의 등장으로 또 한 번 안방극장을 열거하게 만들었다. MBC 월화드라마 '나쁜형사' (극본 허준우, 각본 이현 1연출 김대진, 이동현)는 연쇄살인마보다 더 독특한 형사와 연쇄살인마보다 더 위험한 전제 사이코패스의 이슬아슬한 공조수사를 그린 범죄드라마로 60분 내내 휘몰아치는 전개와 감신하군, 이설, 박호산, 김건우 등 배우들의 불꽃 튀는 열연, 그리고 짜임새 있는 연출과 감각적인 영상미, 배경음악 등이 더해져 스타일리시한 감성 액션 범죄수사 장르물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 11-12회 방송은 빠에로 조커 가면을 쓴 살인마가 등장해 시청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그리고 그 빠에로 조커는 살인마를 저지른 후 CCTV 앞에서 태연하게 '나쁜형사는 살아있다'라고 쓰여진 종이를 보여줘 우태석(신하균)을 비롯한 S&S팀과 경찰 모두를 혼란 속에 빠뜨렸다.

그러나 언제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범인의 생각을 앞지르는 날카로운 수사 능력을 지닌 우태석은 범행 방식을 보고 단 번에 그가 진짜 장형민(김건우)이 아님을 알아냈다. 그것도 모자라 살해 방식을 살펴보고 나서 범인이 도주를 배운 사람이

라는 것까지 추경해내며 남다른 수사 능력을 증명해 냈다.

또 다시 발생한 살인 사건 현장에 나간 우태석은 사건 주변을 둘러싼 인과 중에서 "가면 뒤에 숨은 겁쟁이가 관심을 끌어보겠다고 발악하는 겁니다"라는 말에 미묘하게 반응한 주성을 발견하고는 그를 용의자로 지목해 추적을 시작해 긴박감 넘치는 전개로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용의자의 뒤를 쫓아 들어간 방동창과 보일러실에서 태석은 갑자기 뒤에서 나타난 주성의 전기 충격기 공격에 쓰러졌지만, 때마침 나타난 S&S팀의 동운(차선우)과 경찰들의 목소리에 용의자가 도망을 가면서 가까스로 위험에서 벗어났다.

여기서 형사 우태석의 센스는 빛을 발했다. 목숨이 위중한 순간에도 기지를 발휘해 용의자의 손을 물어뜯어 DNA를 확보했던 것.

이는 지난 1-2회 방송에서 장형민을 잡기 위한 뒷줄을 놓기 위해 일부러 강권처를 날린 후 거머쥔 물은 피로 함정을 깔던 우태석의 모습과 오버랩되며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느낌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하기 충분했다.

우태석과 S&S팀원들은 빠에로 조커 살인마가 살인 현장을 생중계하

는 영상 속에서 단서를 발견해 또 다시 추적에 나섰다.

하지만 빠에로 조커 살인마는 동운을 납치했고, 태석은 동운을 데리고 갔다는 음성이 변조된 누군가의 협박 전화를 받는 장면이 엔딩을 장식하며 시청자들에게 손에 땀을 쥐는 긴장감을 선사하며 다음주 방송을 향한 기대감을 높였다.

'나쁜형사'는 한 시도 눈을 땔 수 없게 만드는 사건들과 신하균을 중심으로 한 인물들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텐션, 그리고 높은 완성도를 바탕으로 첫 방송부터 지금까지 부동의 시청률 1위 왕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11회는 8.5%, 12회는 9.6%(닐슨 코리아 수도권 기준) 시청률을 기록하며 지상파와 케이블 모든 채널을 통틀어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여기에 광고주들의 주요 지표이자 채널 경쟁력을 가능케 하는 핵심지표인 2049 시청률은 12회가 3.4%로 어제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 중 1위를 차지, 최고의 인기와 화제성을 겸비한 드라마임을 입증했다.



## 엑소 신곡 '리브샷', 美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1위

엑소가 신곡 'Love Shot' (리브샷)으로 미국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 지난 13일 공개된 엑소 정규 5집 리패키지 타이틀 곡 'Love Shot'은 18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대만 최대 음악 사이트 KKBOX 한국 싱글 차트에서도 1위에 올라 글로벌 음악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

또한 엑소는 정규 5집 리패키지 'LOVE SHOT'으로 한터차트, 신나리레코드, 핫트랙스, 교보문고 등 각종 음반 차트 주간 1위를 석권함

은 물론, 아이튠즈 종합 앨범 차트 전 세계 62개 지역 1위, 중국 사미뮤직 종합 차트 1위 등 국내외 차트를 휩쓸었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 곡 'Love Shot' 한국어 및 중국어 버전, 캐치한 업 템포 그룹부가 매력적인 팝댄스 곡 '트리우미', 어쿠스틱 기타 선율과 엑소 멤버들의 보컬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R&B 발라드 곡 'Wait' 등 4곡이 추가 수록됐다.

엑소는 20일 오후 8시 서울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열리는 0x FESTA with EXO (영 페스타 위드 엑소)에 출연한다.



### 오늘의 운세 2018년 12월 20일 목요일 (음력 11월 14일)

<p>▶<b>띠띠</b> 사랑은 마음과 마음으로 진실하게 이어져야 갈등이 없다. 2, 5, 8월생은 책임 있는 언행과 행동이 필요하다. 비, 사, 자 성씨는 순간적인 분노로 인해 훗날 헤어지는 격이니 성급한 행동은 금물이다. 현재 추진하는 일은 서서히 성사할 수.</p>	<p>▶<b>띠띠</b> '참을 인자가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처럼 내 앞에 주어진 일만 성실히 하면 오해는 시간이 풀어줄 듯. 5, 7, 10월생은 금전 문제로 힘겹다면 직, 소, 말띠에게 도움을 청하라. 애정은 방해자가 나타난다. 손재수 조심.</p>	<p>▶<b>띠띠</b> 금전은 아내가 관리하라. 5, 9, 11월생 필요 이상 지출이 많다. 창고에서 내년에 심을 씨앗을 꺼내는 격. 유부남은 여자 조심. 비, 자, 표 성씨는 북쪽에 가지 말라. 손재수가 따른다. 애정은 시간이 늦춰질 뿐이지 이뤄진다. 기다리라.</p>
<p>▶<b>띠띠</b> 이룰 수도, 저러 수도 없는 속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자 신감을 되찾고 냉정히 판단하라. 동, 북쪽에서 도움 줄 자 나타나 새롭게 시작하라. 미, 비, 흥 성씨는 확고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자신감 있게 노력하라.</p>	<p>▶<b>띠띠</b> 지금까지 지었던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니 차분한 마음으로 힘들어도 하나씩 추진하라. 비, 사, 흥 성씨는 처음보다 나중에 큰 이익이 따라주니 투자하면 대성할 수. 5, 7, 9월생 여성은 시댁 식구와 의견 충돌로 마음고생 하겠다.</p>	<p>▶<b>띠띠</b>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인내하면 모든 것이 이뤄지는 길운이다. 기, 오, 자 성씨는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내 운명을 내가 개척하자. 희망이 보인다. 1, 7, 9월생은 주위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단, 뒷사람 말은 존중할 것.</p>
<p>▶<b>띠띠</b> 마음을 달랠 길 없어 위로할 사람 찾고 있으나 아무나 의지할 수도 없고, 이뤄질 듯하다가 깨진다.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으니 답답하구나. 1, 3, 4월생은 필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여행을 떠나라. 파란색이 길.</p>	<p>▶<b>띠띠</b>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헛된 욕심에 들뜨지 말고 실속을 차리라. 나, 비, 흥 성씨는 자신을 움직이는 것은 자신밖에 없으니 마음을 슬기롭게 다스리라. 애정은 급하게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성사한다. 건축업, 의료업 종사자는 길.</p>	<p>▶<b>띠띠</b> 내게 불이익이 온다고 원망하지 말라. 내가 씨를 뿌린 타이다. 당장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새롭게 시작하면 몇 배 이익으로 돌아온다. 1, 2, 8, 11월생은 혼자 고집하지 말고 기혼자는 아내, 미혼은 남자친구 말을 들으면 득이 오겠다.</p>
<p>▶<b>띠띠</b> 적은 투자로도 큰 이익을 얻을 수. 마음먹은 일을 믿고 나갈 때 귀인이 돕는다. 미, 사, 표 성씨는 책임질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언행 조심. 4, 7, 12월생은 의견 대립으로 거러치와 연쟁할 수 있겠다. 대인관계에 유의할 것.</p>	<p>▶<b>띠띠</b> 지금까지 해온 일에 변동이 있다. 서두르지 말라. 다음 달 성사 가능. 1, 5, 7월생은 배우자를 사랑하라. 기, 사, 오 성씨 미혼자는 결혼 운보다는 애정 운이 좋다. 여성은 밤길, 자 조심.</p>	<p>▶<b>띠띠</b> 현재는 앞뒤가 막막한 상태지만, 동쪽에서 도움 줄 자 나타나 밝음이 찾아온다. 3, 4, 8, 19월생은 친구와 우정이 변해 결혼할 수지만 주의 반대로 신경 쓴다. 비, 자, 흥 성씨는 우울증을 조심하고, 흰색으로 나를 나타내라.</p>